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용

조 성 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센터 본부장)

1. 연구의 목적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가족친화마을환경과 가족친화직장환경을 구분하고 사회문화변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가족품앗이, 모두가족봉사단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직장환경조성에 관한 부분은 논의가 적어 그 활용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2. 관련정책 고찰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가족친화문화조사를 하는 가족친화지수조사 실시, 가족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가족친화기업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가족송 보급 및 가족사랑 캠피인을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최장근로시간, 높은산재비율등으로 근무여건이 일가정균형을 이루는데 제약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제도 도입등 법률개정과 가족친화기업대상 선정등 시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가정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족친화인증지표와 가족친화지수의 영역별 재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영역, 법적근거준수영역, 기관차원의 가족프로그램 도입 영역, 기관차원에서 사업추진 방향의 수정가능영역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이후 기관차원의 가족프로그램 도입 영역, 기관차원에서 사업추진 방향의 수정가능영역중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및 인증 후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결과 및 결론

가장 활용도가 높은 영역은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이다. 즉 기업에서 일가정균형의 필요성, 아버지교육, 부모교육, 예비교육등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가족생활교육등을 직원대상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동서발전같은 경우는 직원과 가족을 모두 초청한 1일 또는 1박2일 가족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고가 중산층의 여가를 지원하는게 맞느냐는 의문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 즉 기업이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전문 가족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일가정균형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사랑의 날, 정시 퇴근을 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메리츠화재나 삼성생명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족친화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시도이며,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에 도움이 될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